



## 방통위는 새사업자 공모를 서둘러라.

- 방송정파 85일, 1,350만 경기도민 청취권 방치
- 방송통신위원회는 6월 공모 통해 공적책임 다해야..

방송통신위원회는 설립 목적에 충실하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고 방송통신 이용자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하지만 유독 FM 99.9MHz의 새 사업자 공모에서는 설립 목적을 망각했다.

“사업자의 일방적인 방송권 반납“, 이를 어찌해 볼 수 없는 “미비한 방송법 규정“, 공공재인 지상파 정파를 막지 않는 “소극적 행정“이란 3박자 장단에 FM 99.9MHz는 2020년 3월 30일 0시를 기해 멈췄다. 그리고 85일이 지난 지금도 1,350만 경기도민의 청취권은 유린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방통위가 말하는 공적책임이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공공재인 지상파 방송 FM 99.9MHz를 이대로 방치하는 게 진정 공적 책임을 다하는 방통위의 모습인가?

무엇이 방통위를 대낮에 길거리에 내려앉은 올빼미처럼 갈 길 몰라 방황하도록 하는가?

방통위의 할 일은 자명하지 않은가?

사라진 공중파를 하루라도 빨리 청취자들의 품으로 돌려주는 것.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목적에 맞게 명확한 업무수행을 요구한다.

지금이라도 FM 99.9MHz를 운영할 새로운 사업자 공모에 나서라.

2020. 6. 22.

전국언론노동조합 경기방송지부

